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1년 12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끎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 2021년 12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아들이 게세마니 동산에서 고뇌를 겪었을 때, 그는 자신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중히 여겨 받아들였다. 예수는 결코 이 내맡김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나의 계명들이* 곧 온 인류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이다. 나의 계명들은 인간의 구원의 개요다.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 아들의 굳은 결의를 본받아라.”

“사탄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너희와 나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너희를 설득하게 놔두지 마라.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에 있어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나의 뜻은 너희의 삶과 너희 주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의 내맡김의 깊이는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를 반영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요한 15: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2021년 6월 24일 - 7월 3일까지의 메시지 참조:

http://holyllovekorean.com/xe/index.php?mid=subject&document_srl=93159

■ 2021년 12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대림절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진지한 마음의 준비를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그들은 덩그러니 추운 날씨의 고생을 견뎌내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관 주인에게 거절을 당했으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를 낚을 제대로 된 구유 하나 없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큰 겸손과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기도하였다.”

“그들에게 미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준 것은 바로 이 두 덕이었다. 거룩한 용기는 그들을 나의 신성한 뜻에 결속시켰다.”

“자녀들아, 너희 또한 모든 미지의 상황에서 나의 신성한 뜻에 매달리도록 이와 똑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나의 안배는 현 순간의 은총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종종 너희는 그저 내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너희 삶 속에 보내줄 것임

을 믿어야만 할 때도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안배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71)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혈투고 제 목숨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버리셨다. 구해 줄 사람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꾀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로 뒤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저의 입은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구원의 행적을 온종일 이야기하리니 저로서는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하느님의 위업을 칭송하며 들어가 오로지 당신의 의로움만을 기리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 깊은 물에서 저를 다시 끌어 올리셨습니다. 저의 명성을 더해 주시고 저를 다시 위로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실을 찬송하오리다. 비파 타며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당신께 노래할 때 제 입술이 기뻐 뛰고 당신께서 구하신 제 영혼도 그러하리이다. 저의 혀도 온종일 당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리니 저의 불행을 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기 때문입니다.

■ 2021년 12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녀들아, 대림절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세속적인 걱정을 비워내어 크리스마스날 갓난아이가 자신을 따듯이 맞이하는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 하여라. 서로 용서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나의 안배를 신뢰하여라.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자신을 돌보아라. 다른 이들

에게 올해 그들이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물로서 친절과 이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내 아들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12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는 베푸는 시기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너희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시기라는 점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다른 이들에게 너희의 용서와 인내,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사랑을 베풀어라. 성가정은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들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날 기꺼이 인류에게 베풀었다.”

“이런 선물들은 리본이 달린 화려한 포장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선물들은 마음의 선물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합법화된 낙태 종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부족의 종식을 위해서, 너희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크리스마스날 다른 이들과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에 대한 답례로 나는 너희에게 최상의 은총을 베풀어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3:18-24)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12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본다. 누구든 너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희의 한결 같은 사랑이다. 너희의 마음이 모든 사리사욕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졌다면,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나는 기도와, 언제나 물질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통해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본다. 이들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이들이다. 이런 이들의 마음은 외모나 이기적인 시간과 돈의 사용 등의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한다. 이런 이들의 마음은 아기 예수를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소박한 구유와 같다. 나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한다. 갓 태어난 내 아들을 감싸안을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날 아침 나의 눈길과 나의 포옹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 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 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2021년 12월 6일 - 성 니콜라우스 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은총의 진가를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역사를 통틀어, 여러가지 위대한 업적이 현 순간 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영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말없이 방주를 건설했던 노아가 있었는가 하면, 신약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의 탄생을 믿어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난 사실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현재, 미국 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라는 끔찍한 법의 정당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 참혹한 합법적 유아 살해죄에 대한 현 순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양심이 나의 계명들이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현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총을 받아라. 현 순간의 은총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이들은 미래 세대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훗날 사람

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 순간의 은총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장 애물을 극복해야만 되었는지를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 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 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2021년 12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신비스런 여정을 떠나자. 너희는 마구간에서 비어 있는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마구간은 매우 춥지만, 구유 옆에 있는 너희는 따뜻하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 반대편에 있다. 갑자기 거룩한 성모의 품이 ‘빛’으로 가득 차오른다. 마리아는 몸을 굽혀 이 ‘빛’을 구유 안에 넣는다.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빛이 아기 예수로 변화된다! 예수는 몸을 떨고, 거룩한 성모는 예수를 포대기에 싣는다. 너희는 구유 온 주변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구유 옆에 있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부디 이번 성탄절에는 너희 마음이 세상에서 초탈하여 마구간의 구유 옆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 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 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2021년 12월 8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을 때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는지! 나는 악의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으며, 언제나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나는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하느님과 온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품고 있

다. 나는 이 사랑의 불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단 한 손
간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거룩한 현존을 내 안에 모시고 다녔다. 아با 하느님
께서는 나의 태중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품는 유례 없는 특권을 나
에게 주셨다.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십자가형의
현장에서도 하느님의 뜻의 짐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내 아들이 수
난과 죽음을 당할 때, 나는 영적으로 사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었다.”

“오늘날, 나는 이제와 영원히 용기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짐을 짊
어지고 있는 교회의 어머니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26-31)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
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
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
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
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 2021년 12월 8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
리아 대축일. (이 메시지는 은총의 한 시간 기도 중에 주어졌습
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모
린), 나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태아 묵주’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 궁핍한 작은 이들은 아직 이 묵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 묵주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데 있습
니다:

-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개정판 (한국어):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814>

- 영어 묵주기도 묵상집: <https://www.hollylove.org/rosary-meditations>

- 태아 묵주기도와 짧은 묵주기도 한영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44>

- 태아 묵주기도의 약속과 은총: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457>

- 태아 묵주 온라인 주문: www.rosaryoftheunborn.com

■ 2021년 12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
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자녀들아, 어떤 순간이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너희의 수호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조언하고, 또 너희를 보호

하기도 한다. 너희 주변이나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 두려움은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에 속하지 않
는다. 거룩한 성모가 일생 동안 그랬듯이 너희도 나의 신성한 뜻
으로 너희 자신을 감싸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71)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
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십니
다.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
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
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저
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
다.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혈뜬고 제 목숨 노리
는 자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버리셨다. 구해
줄 사람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 하느님, 제게
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피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로 뒤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언
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저의 입
은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구원의 행적을 온종일 이야기하리니
저로서는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하느님의 위업을 칭송하며 들어가 오로지 당신의 의로움만을 기
리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
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하느님, 당
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
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 깊은 물에
서 저를 다시 끌어 올리셨습니다. 저의 명성을 더해 주시고 저를
다시 위로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실
을 찬송하오리다. 비파 타며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당신께 노래할 때 제 입술이 기뻐 뛰
고 당신께서 구하신 제 영혼도 그러하리이다. 저의 혀도 온종일
당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리니 저의 불행을 피하던 자들이 부끄
러워 얼굴을 붉혔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
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
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
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1년 12월 10일 -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거룩한 성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부디 이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사탄이 너희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그날 각 영혼을 위해 특별한 은총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오늘은 로레토에 있던 초라한 집이 각별히 나의 천사들에 의해 이탈리아의 현재 보금자리로 옮겨진 일을 기념하는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이 강력한 은총을 기념하여라. 그리고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로부터 내가 이 선교사업을 구해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나의 권능은 사탄이나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조종당할 수 없다. 나의 품 안에서 의로운 힘을 찾고 그것에 의지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3)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4: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2021년 12월 12일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 때, 나는 특별히 내 성심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나는 또한 성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찾았을 때 느꼈던 기쁨의 일부를 너희에게 베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며,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내 은총으로 너희를 안아줄 수가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사탄은 영향력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가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과달루페의 성모의 모습으로 발현했을 때, 유아 살해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슬프게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아 살해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합법화되었다. 정부는 낙태를 승인하는 것도 모자라 장려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 매체는 보통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바로 이 죄 하나 때문에 온 나라들이 의로움의 길에서 이탈해버렸다. 이 나라(미국)를 위한 수많은 은총들이 낙태 때문에 베풀어지지 못했다.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더욱더 주도권을 쥐게 된다.”

“오늘날의 초점은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사랑과 다른 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일반적인 태도가 수많은 죄의 초석이 된다. 합법적인 낙태도 바로 이런 태도의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죄악적인 사고방식은 영혼이 선과 악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느님께서서는 누가 낙태를 장려했거나 낙태에 참여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뉘우치는 마음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 또한 회개하는 나라들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나 완고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 주변 세상도 같이 따라간다. 악은 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죄는 바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상은 나의 메시지와 나의 축복이다.”

“아무것도 - 돈이나 세상의 찬사, 심지어 건강조차도 - 현 순간 각 영혼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각 영혼의 지상 여정에서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의 목표들을 재검토하여라. 하느님의 계명들에 따라 살아라.”

“나는 수세기 전 후안 디에고를 통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아바 하느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 번 세상에 왔다. (내가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고, 태아들을 존중하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 기도를 너희에게 남긴다. 사랑하옵 주님, 부디 이 일을 허락하소서.”

“이제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멕시코인이었던 후안 디에고 (1474-1548)에게 1531년 12월,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경계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벽지였던 테페악 언덕에서 네 번에 걸쳐 발현하셨습니다.

■ **2021년 12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대림절의 남은 기간 동안 기대감에 찬 믿음과 기쁨으로 내 아들의 탄생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일을 고대하여라. 너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를 없애어 내가 너희 마음을 지금 이 시기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하여라. (성탄절)을 둘러싼 장식이나 선물 등이 모든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지나가 버린다. 남은 것은 오로지 크리스마스날 구유를 가득 채웠던 나의 갓난 아들의 현존이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그의 가냘픈 몸을 감싸주었던 (구유속의) 짚과 같다. 너희의 믿음은 포대기처럼 예수를 둘러싸고 그를 따뜻하게 해 준다.”

“너희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서 이 기쁜 축제일을 현실로 만듦으로써 이 기쁜 날에 참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2021년 12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을 본받거라. 그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신뢰 속에 두려움 없이 길고도 몹시 고된 여정을 떠났다. 너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나의 안배의 손길이 작용하기를 기다렸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디에 있었든 그 순간에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 가득한 내말길을 실천해야만 한다. 매 현 순간 인내를 실천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거라. 나의 해결책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6:5-11)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 **2021년 12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안배와 나의 신성한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희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너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신뢰에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71:4-6)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 **2021년 12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대림절 동안 나의 신성한 안배를 신뢰하고 나의 안배에 의탁하면서 너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를 없애라. 나의 안배는 나의 뜻과 하나다. 너희는 내 은총이 활동하는 방식 -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는 너희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지 - 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축제 시즌을 오로지 물질적인 이유로만 기념한다. 그들의 기쁨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그들의 기쁨은 오히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 뿐이다.”

“너희 마음이 영원한 것 곧, 나에게 대한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라게 하여라.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래가지 않으며, 그저 한 시즌에 그친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를 부른다. 이것은 너희를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이끈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021년 12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바치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나의 섭리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나는 선과 악의 불균형의 시대인 오늘날 너희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만일 너희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온 주변과 온 세상에 있는 악을 볼 수 있다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서 나의 성심으로 곧바로 기도를 보내고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너희는 사탄이 왜 끊임없이 너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려고 애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결국에는 너희의 기도, 특히 묵주기도 때문에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현 순간 나의 주의를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현 순간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어 너희의 정신이 깨어 있고 기도를 잘 하도록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악한 자는 너희가 너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너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1년 12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올해에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라. 각각의 현 순간은 그 전 순간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한낱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을 때, 그들은 나의 뜻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나의 뜻을 섬길 수 있는지에 열중하면서 온 여정에 걸쳐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무 자주 너희 자신과, 세상에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에 집중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직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의 지상 생활을 즐기려고 애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히려 많은 기도와 희생,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너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12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사는 데 있어 내(內衣)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룩한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덕이 없으면 영혼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바랄 수 없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하여라.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 맺는 관계를 통해 나의 뜻을 깨달아라. 오직 이것만이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최근의 바이러스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세상의 죄에 오염되는 것이다. 이 죄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너희는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도 쓸 수 없다. 너희는 올바른 양심으로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 감싸여 있다면, 너희의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겸손과 사랑의 수용은 이 힘든 시대의 훌륭한 ‘백신’이다. 이를 사용하여라.”

“그러면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1-7, 13)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1년 12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막바지 축제 준비가 너희와 나의 관계의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의) 관계를 잘 다듬는 것을 포함하게 하여라. 너희의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장식하여라. 그 사랑으로 너희 주변 세상을 밝혀라. 이것이 너희가 모든 이를 기쁘게 해 주는 선물이 되게 하여라.”

■ **2021년 12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크리스마스날 주어질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 있는 무덤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천상의 말씀으로 생기를 뿜 것이다.”

■ **2021년 12월 2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나보다 너희의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너희 마음과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받아들일기를 원하는 기도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이번 성탄절에는 현재와 모든 과거사에서 용서를 실천하여라. 쓰러진 기억들을 자꾸 되새기지 마라. 이것은 다만 너희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수많은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나의 은총이 어떻게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며 너희 삶에 개입했는지 잘 살펴보아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나의 안배가 완전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문제들을 나에게 털어놓고,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여라. 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며, 흔히 예상을 벗어난다. 너희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너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계속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나의 뜻에 내맡기는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5)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2021년 12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그들은 낮에는 더위, 해가 진 다음에는 추위 등 모든 일에 대비해야만 했다. 그들은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잘 세워야만 했다. 성탄 대축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면서 너희 마음이 어떤 영감이나 분심이나 사건 등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 있는 은총의 그릇으로 만들어

라. 기도로 너희 자신을 덮어라. 이것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너희의 노력을 보호해줄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너희의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우리의 관계를 제 1 순위로 만들어라. 다른 '장식'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 기도로 너희 마음을 장식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감싸라.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 주변 세상을 환히 밝혀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이며, 영원한 영향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모든 특별한 은총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함으로써 이번 성탄절을 가장 특별한 성탄절로 만들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6:11)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 **2021년 12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너희의 문제들, 그리고 너희의 삶과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모두 나의 부성적 성심으로 가져와 그곳에 두어라. 너희는 각 상황에 대해 내가 마련해 놓은 해결책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하게 놔두고, 내가 보내줄 은총을 기다려라.”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감사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여라. 나의 가장 큰 은총은 가장 절박한 상황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는 한,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로 이끌고 거룩한 사랑의 길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은총이다. 너희는 단지 이 메시지들을 복사하여 전하는 것만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너희 각자를 나의 메신저로, 나의 팔과 다리, 또 나의 목소리로 사용한다. 세상에서 나의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6-7)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1년 12월 24일 -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곧 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아들은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다는 점, 축축한 마구간, 그리고 구유를 아기 침대로 쓰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태어났다. 이는 불가능에서도 승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나는 그가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희생으로서 시작하고 희생으로서 끝나야만 했다.”

“나의 뜻은 그 구유의 온 주변 곧, 어둠과 습기와 추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점을 이해하였으며,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받아들였다.”

“요즘 시대에 나의 뜻은 승리는 물론 패배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어려움은 다 나의 뜻이다. 모든 기쁨과 실망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받아들임으로 이끈다.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면서 너희의 아집의 문을 열어 나의 뜻에 대한 감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4-5)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2021년 12월 25일 - 크리스마스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성탄일을 잘 보내기 바라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이란 언제나 마음의 평화다. 평화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날개를 타고 다가오지 않는다. 평화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다. 온 인류 사이의 모든 갈등과 모든 새로운 질병들, 가난과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 등은 모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나쁜 열매다. 만약 모든 이가 그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전쟁이나 거짓 종교, 악마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마음의 평화의 원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는 그 적과 싸울 수 없다. 원수란 너희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과 상황과 죄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만드는 자다. 이 원수는 결코 쉬지 않으며, 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오늘, 내 아드님께서 힘없는 어린아이로 지상에 오시어 추위에 시달리고 구유의 수모를 겪으시면서 한 마디 (불평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너희의 성탄일을 시작하여라.”

“내 아드님은 당신의 삶을 구유에서부터 봉헌하셨으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성탄일에 구유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의 갓난 아드님이 내 가슴에 기대어 쉬시면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묵상하여라. 나는 그때 그분을 내 품에 안아 드렸다.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그분을 안아 드리도록 초대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만아들 (first-born):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 권리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 21:15-17 참조). 이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리서 제 500 조항). 예수님께서 성부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만아들도 되십니다 (요한 1:18, 콜로 1:15 참조. 마태 12:46 주석 참조).

* ‘거룩한 사랑이란’ 전단지:

<http://holylovekorean.com/xe/data/79238>

■ 2021년 12월 26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탄절 또한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탄절의 정신을 너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할 것을 청한다. 성탄절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절이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미지근한 영혼들까지도 이 성탄절에 세상에서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따뜻해진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데 전념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결의 그 하나뿐이다.”

“성탄절의 세속적인 면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린다. 머지않아 모든 선물은 어떤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해 흔한 것이 되고 잊혀진다. 너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과 하나라면,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탄의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되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21년 12월 27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또 나의 계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것들을 바꾸어야 하겠느냐?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죄의 유혹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좀 더 많이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 삶 속에는 너희가 조바심이 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유혹의 순간들에 대비해 미리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 이런 유혹들이 즉흥적으로 나타난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유혹을 나에게 봉헌하여 (하루 종일) 유혹들이 나타나는 대로 즉시 나에게 봉헌되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조바심이 나도록 유도하는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때 너희의 천사가 너희에게 이 점을 상기시켜줄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하루 종일 너희의 천사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죄의 유혹과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천사는 또한 너희가 가야 하는 의로움의 길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며, 만약 너희가 이 길에서 미끄러지면 너희를 다시 이 길로 이끌 것이다.”

“너희가 수호천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수호천사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너희에 대한 그의 봉사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늘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마땅히 자신의 수호천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1년 12월 28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너희의 신심은 너희가 거룩한 성모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결코 단념하지 마라. 너희

가 어머니와 가까우면, 너희는 그 아들과도 가까운 것이다. 너희의 문제들과 기쁨, 너희가 영적으로 염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털어 놓으면서 소통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항상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과 너희가 삶에서 거룩함을 우선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다. 사탄이 너희 주변 세상의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너희의 기도 생활을 좌절시킬 때 그자를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너희가 특정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의 방식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방식은 항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여라. 너희가 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나의 뜻에 내맡기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허락하는 뜻 (Permitting Will)’이며, 그것은 언제나 나의 방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1년 12월 29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이와 외로운 이, 병든 이와 오해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이다. 나의 사랑은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진다. 물질주의의 덫에 걸린 자들은 결코 안정을 찾거나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몰두한다.”

“내세를 얻는 데 너희의 만족과 기쁨을 두어라.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는 한평생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며 살았던 이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인상을 받지 마라. 영혼이 그가 얻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영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세상에서 크게 존경받는 자들의 눈에 그리 중요한 인물로 비치지 않는 비천하고 겸손한 길이다.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희생의 열매가 가득한 왕국을 천국에 건설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21년 12월 30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마음속에 걱정을 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말하지만, 너희는 큰 징벌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너희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초점을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보다 깊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면,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이나 사건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은 지금 이 시대에 너희의 ‘방주’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이 추구해야 할 자질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노아도 그렇게 비웃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너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3-4)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 2021년 12월 31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 번, 너희가 나의 안배를 신뢰할 것을 촉구한다. 부족한 곳은 나의 힘이 그 차이를 메꿔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것이 원칙이 되게 하여라.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은총이 너희와 이 선교회에 준 많은 힘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선(善)을 이루어 냈는지를 마음에 새겨라. 이 사실에 고무된 삶을 살아라. 사탄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모든 방해에 잘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4: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태아목주 (5단)



확대된 목주알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5단): \$29.95 짧은 태아목주: \$14.95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저녁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가 나옵니다. Lorain Road에서 서쪽 방향으로 4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1/2" x 10-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lylovekorean.com (웹사이트)